

노인 특성의 변화 및 정책 제언 (1994~2008년)¹⁾

- 노인의 삶은 지난 15년간(1994~2008년) 교육 수준, 가구형태,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의 많은 변화가 나타남. 특히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적인 삶의 수준은 다소 하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노인정책에서는 노후 소득 및 신체적 건강보장 정책 뿐 아니라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 건강 향상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필요로 할 것임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

□ 1994~2008년의 15년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성비 구성을 비롯하여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및 가구형태에서 변화를 가져옴

○ 1994년 노인의 61.3%가 여성이었으며, 2008년 현재 59.8%로 약 1.5% 감소하였으며 남성노인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음. 또한 노인의 결혼상태에서는 유배우 비율이 1994년에 비해 2008년에는 16.6%포인트 증가하였음

○ 노인의 연령구성은 1994년 65~69세 노인이 41.5%였으나 2008년 38.0%로 다소 감소하였고,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층이 증가하여 75~79세는 1994년 16.5%에서 2008년 17.6%로 증가함. 특히 80세 이상 노인은 12.4%('94년)에서 16.0%('08년)로 약 3.6%포인트가 증가하고 있음

[표 1] 노인의 성 및 연령·결혼상태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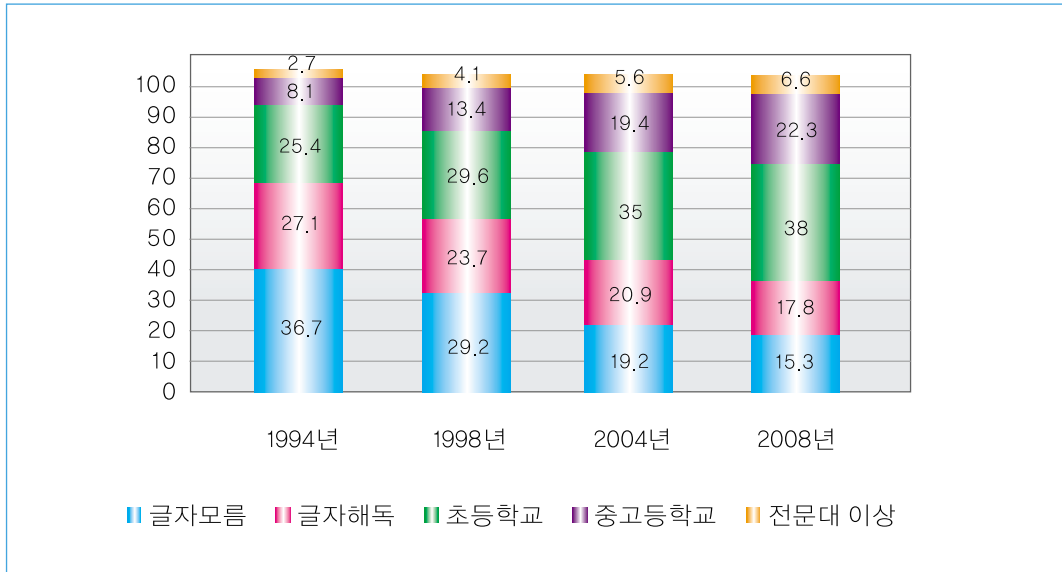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성				
남성	38.7	36.9	38.3	40.2
여성	61.3	63.1	61.7	59.8
연령				
65~69세	41.5	38.1	37.8	38.0
70~74세	29.7	29.2	28.5	28.4
75~79세	16.5	18.1	17.5	17.6
80세 이상	12.4	14.7	16.2	16.0
결혼상태				
유배우	47.9	49.2	54.8	64.5
무배우	52.1	50.8	45.2	35.3

1) 1994·1998(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의「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의 비교가능한 항목 중심의 재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됨

○ 지난 15년간 노인인구 특성의 큰 변화는 교육수준에서 나타남. 특히 무학노인의 비율이 1994년 65세 이상 노인의 63.8%에서 2008년 33.1%로 절반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남. 또한 중고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의 비율은 1994년에 비해 2008년에는 18.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노인의 교육수준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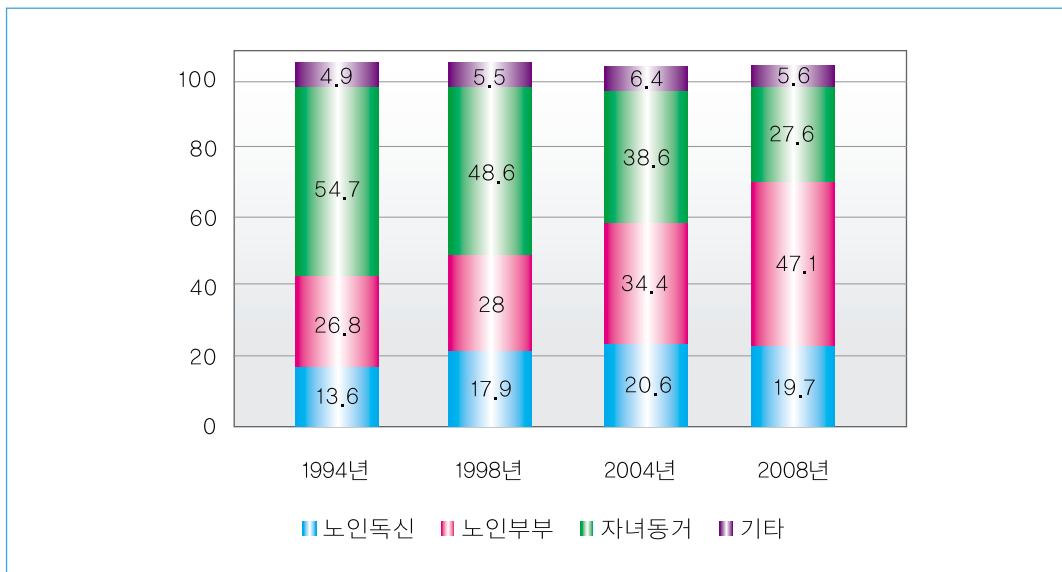


○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1인가구(노인독신)와 노인부부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는 절반가량 감소함

-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26.8%('94년)에서 47.1%('08년)로 약 20.3%포인트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54.7%('94년)에서 27.6%('08년)로 27.1%포인트 감소함

[그림 2]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2. 노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변화

- 지난 15년간의 노인의 소득원은 자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를 보임. 이에 반해 근로수입과 사적이전소득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1994년 노인의 10.5%만이 자산소득이 있는 반면 2008년도는 16.1%까지 증가하였으며,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은 2.9%에서 26.4%로 증가하였음. 즉,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과 개인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현상이며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계층의 증가를 나타냄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기초노령연금 등으로서 공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은 1994년 6.3%에 그쳤으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4년 90.3%가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교통수당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노인의 70% 수준으로 낮아짐
 - 노인의 소득원에 있어 근로수입은 노인의 약 30%전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자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사적이전소득 또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1994년 동년배와 비교할 때 '좋다' 라고 평가한 비율이 18.0%인것에 비해 2008년 5.9%로 감소하였으며, '나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1.5%('94년)에서 46.3%('08년)로 증가함

[표 2] 노인의 소득원 및 주관적 경제상태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수입원				
근로수입	31.9	32.5	27.8	32.3
자산소득	10.5	15.1	12.5	16.1
연금(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2.9	3.0	14.3	26.4
사적이전소득	74.5	75.7	77.4	78.3
공적이전소득	6.3	8.3	90.3	69.1
기타	2.4	-	5.3	-
주관적 경제상태(동년배와 비교)				
좋다	18.0	11.2	11.3	5.9
보통	40.5	38.9	38.7	47.9
나쁘다	41.5	49.9	50.0	46.3

□ 노인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28.5%('94년)가 취업중이며, 1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2008년 노인의 30%가 취업중임

○노인의 취업률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취업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취업자 중 90.1%('08년)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미취업자중 32.2%가 취업하기를 희망함. 이는 1994년 72.6%(계속 근로희망)와 7.8%(미취업자 중 취업 희망)에 비해 매우 높아진 비율임

[표 3] 노인의 소득원 및 주관적 경제상태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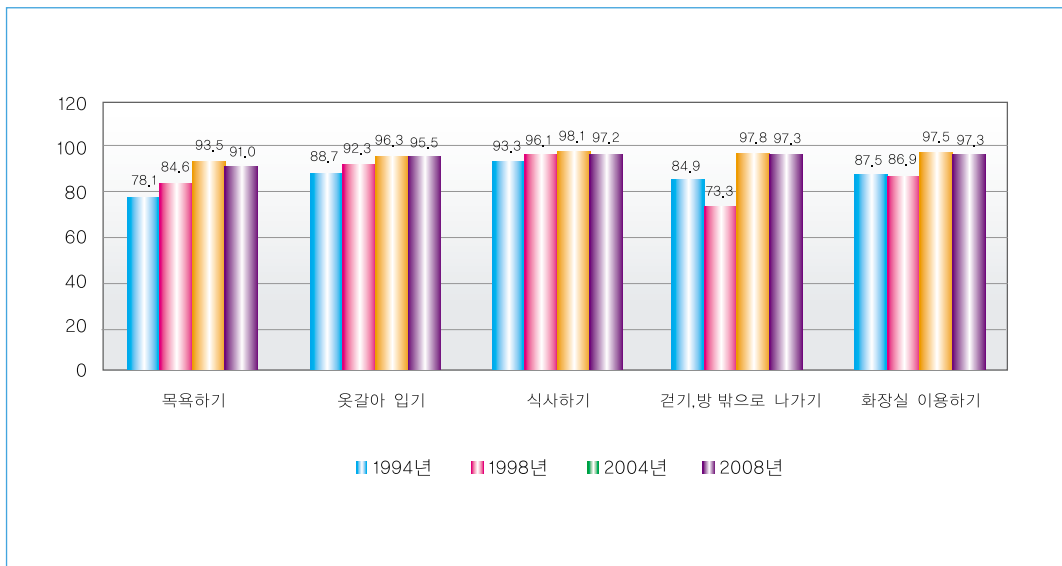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취업률	28.5	29.0	30.8	30.0
계속 취업희망률	72.6	79.3	72.4	90.1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률	7.8	-	17.5	32.2

3.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변화

○지난 15년간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ADL의 6개 기능에서의 도움이 전혀 필요없는 완전자립 노인의 비율은 전 항목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완전자립)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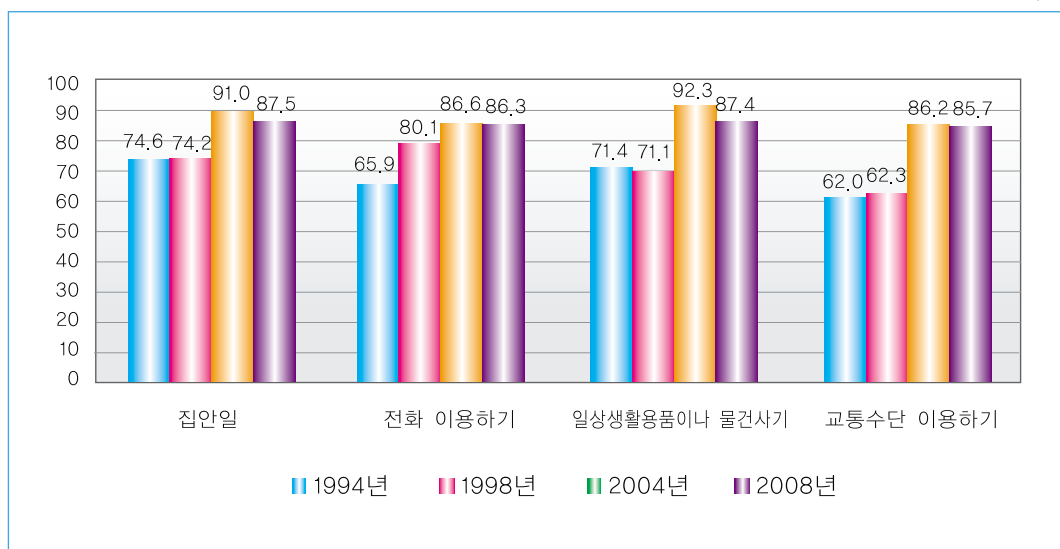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변화

○ 지난 15년간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노인의 74.6%가 집안일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도움이 필요없었던 것에 비해('94년), 2008년에는 87.5%로 증가하여 노인의 독립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화이용하기, 일상생활용품이나 물건사기, 교통수단 이용하기의 항목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냄

[그림 4]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안전자립)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

○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지난 15년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동년배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비율은 1994년에 34.8%인 것에 비해 2008년 26.2%로 약 8.6%포인트 낮아진 반면, 나쁘다고 느끼는 비율은 46.7%에서 55.3%로 약 8.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매우 좋다	6.1	5.0	8.3	2.2
약간 좋다	28.7	19.6	25.4	24.0
보통	18.5	16.5	27.8	18.6
약간 나쁘다	28.6	35.3	26.8	42.9
매우 나쁘다	18.1	23.6	11.7	12.4

4. 노후 관련 가치관 변화

□ 노인의 정책적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지만,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은 점차 늦어지고 있음.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994년에는 20% 였으나 2004년 55.8%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68.3%임

○ 더 나아가 2008년 현재 노인의 10.3%는 75~79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80세를 넘어 야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로 나타남

[표 5] 노인의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의 변화(1994~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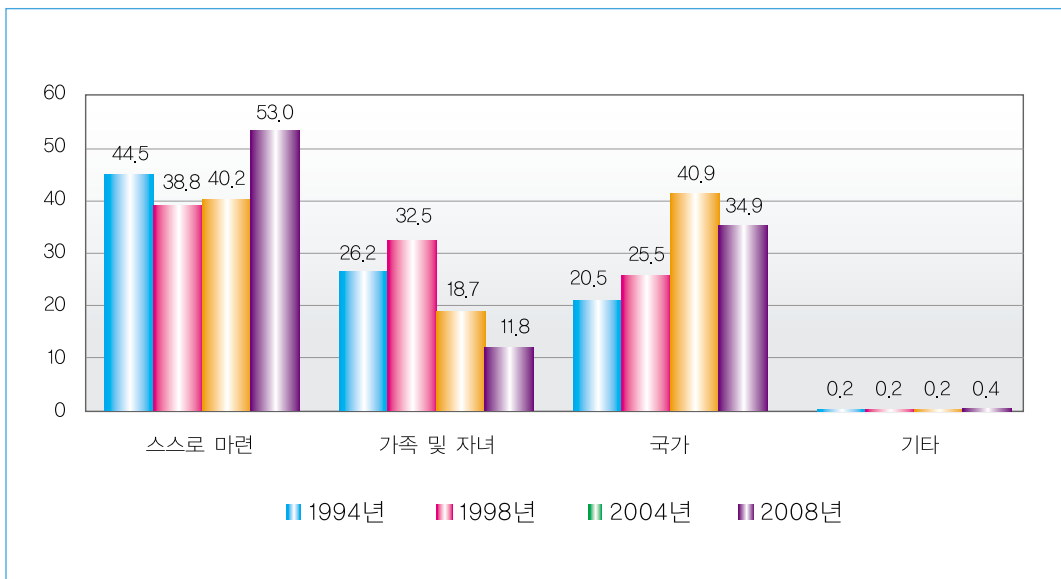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994년	2004년	2008년
60세 미만	3.6	0.6	0.4
60~64세	25.7	12.9	7.2
65~69세	27.7	30.8	24.1
(70세 이상)	20.0	55.8	68.3
70~74세		47.2	50.0
75~79세		4.3	10.3
80세 이상		4.3	8.0

□ 노후생활비 마련의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비율이 44.5%('94년)에서 53.0%('08년)로 증가하였으며,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비율은 20.5%('94년)에서 34.9%('08년)로 증가하였음. 이에 비해 가족 및 자녀의 책임은 26.2%('94년)에서 11.8%('08년)로 감소하였음

[그림 5] 적합한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1994~2008년)

(단위: %)



- 노인이 건강이 악화시에 선호하는 거주형태에 대한 인식은 1994년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5.1%로 과반수를 넘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5% 수준으로 감소하고 배우자 또는 독거, 노인요양시설 이용로 변화되고 있음

○ 특히 2004년에는 배우자가 생존했을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동거의 비율이 1994년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남. 그러나 2008년에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노인요양시설 선호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됨

[표 6] 노인의 향후 건강악화시 선호하는 거주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1994~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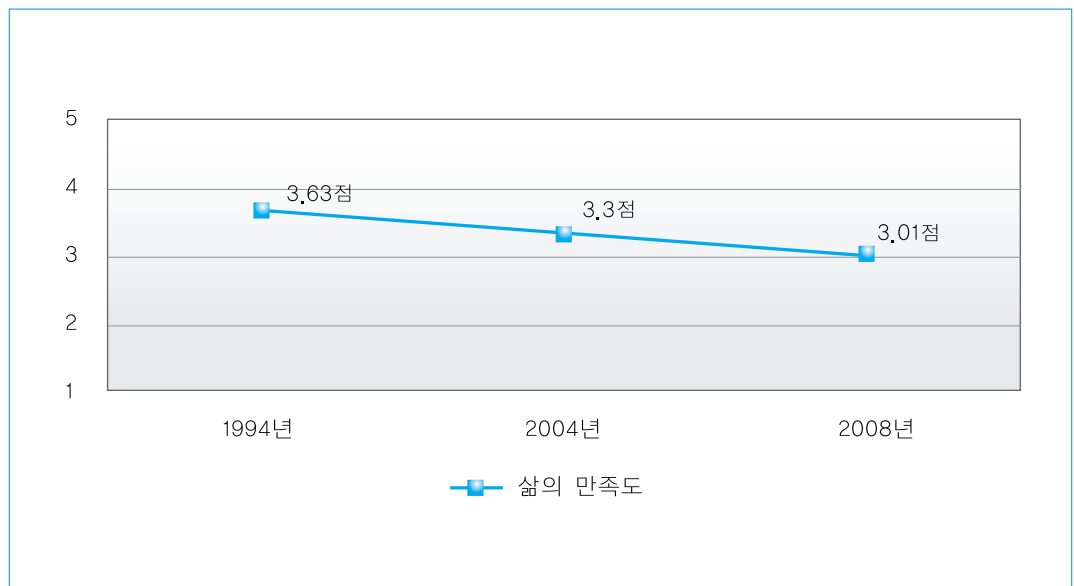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¹⁾	2008년
부부/독거	24.0	-	64.9	39.4
자녀동거	55.1	-	25.8	25.2
노인요양시설	7.1	-	9.2	34.2
기타	13.8 ²⁾	-	-	1.3

주: 1)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를 전제로 질문함. 배우자가 없을 경우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독거(27.1%), 자녀동거(50.0%), 노인요양시설(22.5%)임

2) 기타, 잘 모르겠다는 응답

- 지난 15년간의 노인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94년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3.63점(5점 만점)이었으나, 2004년 3.3점, 2008년 3.01점으로 감소함

[그림 6]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5점 만점)¹⁾



주: 1) 삶의 만족도 측정 방식은 조사년도에 따라 상이함. 1994년에는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개발된 12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2004년에는 동년배 노인과의 비교한 삶의 질 만족도 수준(3.33점)과 영역별 만족도(건강, 경제, 배우자 관계, 자녀관계) 수준(3.3점)으로 조사됨. 2008년 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개발된 25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함

5. 노인정책 방안 제언

- 지난 15년간(1994~2008년) 노인의 교육수준, 가구형태,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남. 따라서 노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을 필요로 함
 -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가구형태에서는 자녀와의 동거형태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1인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함. 향후 희망거주형태에서도 자녀동거형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상태에서는 안정적 수입원을 갖춘 노인이 증가하고, 건강수준에서는 자립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음
 - 노인의 특성 변화에 따라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한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구형태의 변화에 의해 약화된 사적보호망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망의 강화를 필요로 할 것임

- 또한 지난 15년간 노인의 삶의 질에 측면에서는 주관적 건강과 경제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아진 경향을 보임. 이는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노인의 삶의 수준은 향상된 것에 비해 주관적인 삶의 수준은 하향되는 경향으로서 우리사회에서의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졌다고 보여짐
 - 따라서 향후 노인정책에서는 노후 소득 및 신체적 건강보장 정책 뿐 아니라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 건강 향상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윤경(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330)